

No.20171115-001

제목: 시인장의 살인

저자: 이마무라 마사히로

페이지수: 320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10월 13일



<내용소개>

단 1시간 반 만에 세상이 변했다! 기발한 생각과 미스터리의 훌륭한 융합!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제27회 아유카와 테츠야상 수상!

이 작품은 손꼽힐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제27회 아유카와 테츠야상 심사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한 올해의수상작으로,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밀실 살인 사건을 다룬 본격적인 미스터리 소설이다.

초반부는 흔한 학원물로 시작한다. 주인공 하무라 유즈루는 간사이에 위치한 사립대학 신코우 대학 경제학부의 1학년으로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자칭 미스터리 애호회 회장 이과부 3학년 아케치 교스케와 알게 되고, 의기투합한 두 사람의 동아리 활동이 시작된다. 그 해 여름, 아케치는 영화 연구 동아리가 팬션에서 심령 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합숙에 참가하려 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때 수많은 사건을 해결로 이끈 미소녀 탐정인 문학부 2학년 켄자키 히로코가 등장하고, 합숙에 참가하는 그녀의 친구에게 "올해의 제물은 누구냐"라는 협박장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년 참가자 한 사람이 합숙 후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에 사건의 냄새를 맡은 켄자키는 하무라와 아케치를 합숙에 초대하게 된다.

영화 연구 동아리가 심령 영상을 촬영하려는 곳은 S현의 피서지 사베아 호숫가에 있는 별장이다. 사실 진짜 합숙의 목적은 별장의 사장 아들이자, 영화 연구 동아리 OB인 시치노미야를 중심으로 한 남녀 교제 이벤트였다. 낮에는 촬영을, 밤에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합숙은 별 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다. 그러던 첫 날 밤, 담력 시험을 하러 모든 참가자가 나섰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며 모든 사람이 별장 안에서 꼼짝 없이 밤을 새게 된다. 그렇게 긴장과 혼란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동아리 부원 중 하나가 밀실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이사건은 연쇄 살인의 시작을 알린다.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절망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무라와 아케치 그리고 켄자키는 생존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을까?

저자는 호숫가에 둘러싸인 별장이라는 기발한 폐쇄 공간을 설정하고 수수께끼 같은 연속 살인극을 개막한다. 미스터리 소설의 친숙한 장치인 밀실 이야기뿐만 아니라 패닉에 빠진 주인공들의

심리 변화를 잘 묘사하며, 논리적인 추리와 심리적 공포의 예술을 훌륭히 양립시킨 작품이다. 하루라와 아케치 그리고 켄자키의 삼각 관계의 행방도 흥미로우며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읽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이마무라 마사히로

1985 년 나가사키 현 출생. 오카야마대학을 졸업.

2017 년 "시인장의 살인"으로 제 27 회 아유카와 테츠야 상을 수상.

No.20171115-002

제목: 분명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

저자: 야마다 무네키

페이지수: 228

장르: 일본 문학

출간일: 2017년 09월 21일



<내용소개>

모든 아이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원치 않는 탄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소설은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백년법'을 쓴 저자가 후타바하우스라는 유아원, 그리고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보육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부모의 질병과 생활고, 학대나 육아 포기 등 다양한 이유로 친부모와 살지 않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아원이 있다. 이 유아원, 후타바하우스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양육 담당자를 결정하고 있다. 아이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특별한 성인'을 후타바하우스에서는 '마더'라고 칭한다. 아이와 마더는 진짜 같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하지만 그 아기가 두 살을 맞이하기 전에 그 친자 관계는 끝나게 된다. 아이가 세상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전에 말이다.

후타바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시마 아츠코는 보육교사 경력 12년차가 되었지만 아직도 본인이 담당하는 아이와 헤어질 때는 제 몸을 자르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츠코가 처음 맡았던 아이 타키와 헤어질 때의 고통은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 아이는 아츠코의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타키와 헤어진 후 줄곧 '혹시 타키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아츠코는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다. 아츠코가 타키를 구하려는 과정에 여러 협력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행동하며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아츠코는 타키를 구하는데 성공하고, 소설의 마지막에 타키는 '아, 나는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소설을 읽고 나면 어딘가에 있을 괴로운 마음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는 유아원을 무대로 한 휴먼 스토리인 듯 한 느낌이 들지만 그 본질은 학대 받는 소녀를 어떻게 구원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이다. 전반적으로 속도감과 몰입감 넘치는 전개로 서술되고 있으며 책장을 덮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책이다. 서스펜스와 휴먼 감동의 요소가 절묘하게 얹힌 야마다 무네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소개>

야마다 무네키

19065 년 아이치현 출생. 1998 년 「직선의 사각」으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제 18 회 요코미조 세이시상을 수상. 기구한 운명에 농락당하는 여자를 다룬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 2006 년에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인기를 끄

No.20171115-003

제목: 생각 연습장

저자: 호소야 이사오

페이지수: 264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7년 10월 26일



<내용소개>

잠들어 있는 당신의 사고회로를 작동시키는 45가지 레슨

영국 딥마인드 사가 개발한 딥마이닝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중국과 일본, 한국 최상의 바둑기사들을 차례로 꺾으며, '수십 년 뒤의 일'로만 여겨지던 인간과의 승부에서 압승을 거둔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패턴 인식의 고도화'라는 형태로 인간 이외의 존재가 지성이라는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던 생각하는 힘(추상화하는 능력)을 인간 이외의 존재가 갖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각 국가가 시행하는 보호주의 정책의 주된 목적인 '이민자들로부터의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으로 높은 충격과 파급력을 지닌 '인공지능으로부터의 일자리 사수'가 새로운 아젠다로 등장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기계)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일, 스스로의 무지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고회로의 작동과 정지의 메커니즘 등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개념을 소개한다. 저자는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 =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지금까지처럼 한다'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 대한 예시가 있으며 그 방식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도, 리스크도 없다. 하지만 무언가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즉, 기존에 해 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변화의 이유, 무엇보다 변화의 실패와 그에 대한 비판 등의 리스크가 동반된다. 즉,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두뇌를 사용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다 자주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장에서는 먼저 그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지막에 연습문제를 배치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의 실질적 적용을 돕고 있다.

삶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며 선택과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우리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늘 시간에 쫓겨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이 기존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과도한 교훈 제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생각의 중요성', '생각한다는 것의 장점'을 체득하기에 적합한 타이틀이다.

<목차>

머리글 :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

제1장 : '생각', 뭐가 좋은 걸까?

제2장 : '주의'=무지의 지식으로 승부가 결정

제3장 : 지식 중심의 가치관에서 탈피하라

제4장 : '생각하는 힘'을 작동시키기 위한 고민

제5장 : 생각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것

제6장 : 생각한다는 것은 정리해서 흡수하는 것

제7장 : '생각'하는 것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자소개>

호소야 이사오

1964 년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출생, 동경대 공학부 졸업.

주식회사 도시바에서 원자력 기술자로 18 년 간 재직 후 비즈니스 컨설팅 업계에 진입, E&Y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약하였음. 전략 수립과 업무 개혁, 글로벌 ERP 도입, 프로젝트 관리 및 변화 관리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저서로는 "만화로 이해하는 지두력", "메타사고 트레이닝", "무리의 구조" 등이 있음.

No.20171115-004

제목: 악마와의 수다

저자: 사토 미쓰로

페이지수: 574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10월 24일



<내용소개>

**2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 베스트셀러에 오른 '하느님과 수다'로부터 3년,
악마의 속삭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여자친구가 필요해', '돈이 갖고 싶어',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숨만 쉬며 살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바람을 갖고 있는 대학교 4학년 미쓰로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수다쟁이 악마가 나타난다. 본문에서는 악마와 미쓰로의 수다를 통해 뻔하디 뻔한 가르침이나 세상에 널린 도덕적인 성공법칙에 질린 청년들에게 여지껏 인간이 당연하다고 여긴 '선(옳음)'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복잡다단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답해주고 있다.

기본적인 본문의 구성은 전작인 '하느님과 대화'와 같이 일상에서의 여러 고민을 안고 있는 주인공 미쓰로 앞에 수다쟁이 악마가 나타나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띄고 있다. 책을 펼친 첫 인상으로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읽을 수 있는 책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깊이가 있는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주장이자 일관된 메시지는 '절대적인 선(善)도, 절대적인 악(惡)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일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가치관과도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다쟁이 악마가 던지는 화두에 대해 주인공 미쓰로가 '아니아니! 결국 악함은 악함인 거잖아!!'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차례로 악마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주인공을 납득시켜 나가는 형태를 취한다. "세상에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다", "얻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반대로 무언가를 계속 잃고 있는 거야", "'즐거운 일상이 열흘이나 계속되고 있어' 라는 말은 사실 아주 중요한 '따분하고 시시한 열흘'을 잃고 있는 것과 같은거야, 그러니 가능한 하찮고 가치없는 날들을 모아야 해" 등과 같은 발칙한 악마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동안 미쓰로는 내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선'이 있기에 '악'이 존재하고, 반대로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함'이 생기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악'이 없었다면 '선' 혹은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 그 어딘가 중간쯤에 세상이 멈춰있을 것이다. 저자 특유의 발칙하고 직선적인 화법이 어딘지 자기변호적 어조를 띄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가치관을 엿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도서이다.

<목차>

- 제1장 : 선을 의심하라
- 제2장 : 분노한 영웅
- 제3장 : 인간 정장
- 제4장 : 신체는 신전(神殿)
- 제5장 : 위협하기 시작한 부적
- 제6장 : 사과의 주장
- 제7장 : 좋은 날 마니아
- 제8장 : 우주시스템의 시작
- 제9장 : 이 세상은 착각의 전투
- 제10장 : 불운을 가져오는 좋은 방법
- 제11장 : 당신은 우주의 효자손
- 제12장 : 당신은 아무것도 나쁘지 않다
- 제13장 : 불가능은 '정확성'을 극복할 수 없는 자의 변명

<저자소개>

사토 미쓰로

삿포로 소재 대학 졸업 후 에너지 관련 대기업에 입사, 현대사회의 모순에 고뇌하다가 2011 년 '사회가 변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사실에 통감하고 영혼을 일깨우는 블로그를 개설,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14 년 '하느님과의 수다'를 출간, 판매고 20 만부를 돌파하며 '철학 인문 사상'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어 열렬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No.20171115-005

제목: 소리 내어 읽기엔 민망하지만 눈으로는 읽고 싶은 53가지 이야기

저자: 후카즈메

페이지수: 290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11월 02일



<내용소개>

품위 없는 가면을 쓴 트위터 여왕, 후카즈메!

연애, 섹스, 인생, SNS, 가족, 사회이슈를 아우르는 고감도 에세이

저자 후카즈메는 트위터에서 1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타 공인 SNS 스타이다. 음담패설에 가까운 야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일상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을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는 단어 선택을 통해 나누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스타로 부상했다. 이 타이틀은 이러한 그녀가 트위터 140자의 제한에 걸려 충분히 하지 못했던, 그녀 자신과 주변의 일들을 칼럼 혹은 에세이 형태로 풀어낸 세 번째 책이다. 그녀 자신의 섹스 라이프, 연애, SNS에 대한 견해, 일상과 인생,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낸다.

본문에서는 본인의 성 경험을 포함한 '야한 이야기'를 직설적 화법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정말로 '소리 내어 읽기 곤란한' 이야기들이다. 본인의 성기를 처음 의식하기 시작한 후 틈만 나면 손거울로 본인의 성기를 관찰하던 유년기, 중학생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첫 키스에서 시작된 남자의 육체에 대한 탐구, 대학 입학 이후의 첫 경험, 유학 생활을 하며 사귀던 외국인 남자친구와의 섹스, 독특한 성적 판타지를 가진 남자친구와의 야외 플레이 등 거침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소재적 특성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언어적 센스로 유쾌하고 유머스럽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천박하거나 불편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그 속에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도 엿보인다. 이를테면, '왜 여자들은 섹스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대한 반면, 자위행위에 관한 내용은 말하기를 꺼리는 것일까?'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여성 특유의 심리적 측면으로 해석한다. 자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을 의미하며,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여성의 본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의 본질을 '성욕 해소'가 아닌, '잠자기 전 양치를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일상적인 행위'라고 인식을 바꾸는 순간 더 이상 자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전처럼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비되는 것으로서의 야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짚고 넘어가는 점은 저자가 일본 내 많은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일 것이다.

발칙한 신여성의 대담한 섹스, 연애, 일상을 엿보는 느낌의 타이틀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경쾌하고 센스 넘치는 표현력과 의외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목차>

- 제1장 : 후카즈메식 섹스
- 제2장 : 후카즈메식 연애
- 제3장 : 후카즈메식 SNS
- 제4장 : 후카즈메식 일상
- 제5장 : 후카즈메식 인생
- 제6장 : 후카즈메식 가족

<저자소개>

후카즈메

1970 년대 출생, 버블 시대의 은혜를 입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인생을 즐기지만 일개지사에 주부가 된다. 2012 년 11 월, 가벼운 마음으로 트위터를 시작, 모 포크듀오의 악담을 계기로 큰 인기를 끌게 되며 팔로워가 급증, 11 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자타공인 트위터 페인이다.

140 자에는 충분히 담지 못하는 예능, 드라마, 인생, 연애, 에로 등 다양한 장르의 주제들을 칼럼으로 기고하여 note 에 연재하고 있으며, 전작으로는 '후카즈메식 사랑과 섹스 이야기', '후카즈메식 가족과 인생 이야기'를 전자서적으로 출간하였다.

No.20171115-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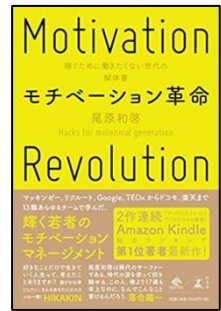
제목: 모티베이션 혁명: '마르지 않는 세대'의 모티베이션

저자: 오바라 카즈히로

페이지수: 256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7년 9월 28일



<내용소개>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은 세대의 모티베이션

이 책의 서두는 "왜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지 않나요?"로 시작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질문에 '요즈음의 젊은 세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결여된 무엇인가를 계속 채워야 했던 윗세대와는 달리 날 때부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 지위 등을 위해 노력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의 젊은 세대를 '마르지 않는 세대'라고 칭한다. 본문에서 저자는 현대의 젊은 세대, 즉 '마르지 않는 세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긍정 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개념을 차용, 먼저 인간의 행복을 달성과 쾌락, 몰두와 의미부여, 양호한 인간관계의 5가지로 정의한다. 갖지 못한 것이 많았던 기성 세대에게 행복이란 '달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와인으로 축배를 드는' 것이었다. 반면, 결여됨이 없는 현대의 '마르지 않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간관계와 의미부여'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의 차이는 비즈니스와 일상 생활에서 도드라지게 된다. 더 이상 빈틈없이 돌아가는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무언가의 부품으로 소모되는 '작업자'보다는 스스로의 일을 정의하고 운영하는 '프로듀서'가 되고자 하며, 상하관계와 관습으로 얼룩진 야근의 종결을 고하고, 저녁이 있는 삶, Work & Life Balance를 추구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 서로 다른 모티베이션으로 나타나기에 기존의 동기 부여와 소통의 방식으로는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각자의 세대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를 복합적으로 이해한 뒤에야 개인의 인격적 측면과 팀으로서의 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점점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은 생존을 위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일하는 방식을 강요한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고도의 기술인력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전통을 묵묵히 계승한다 라는 양 극단이 아닌 다음에는 '영원한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제안한다.

'지금 세상이 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거지?', '우리 회사의 부장님의 사고 방식은 왜이리 구닥다리인 걸까?', '우리 회사의 신입 사원은 왜 저리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당돌한거지?' 라고 생각

해 본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타이틀이다. 기성 세대에게는 요즘의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젊은 세대에게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 '마르지 않는 세대'란 무엇인가?

제2장 : 편애야말로 인간의 가치가 된다

제3장 : 서로 다른 장점의 곱셈을 최강의 팀을 만드는 방법

제4장 : 개인의 일하는 방식

<저자소개>

오바라 카즈히로

1970 년 출생, 글로벌 경영 전략 컨설팅펌인 맥킨지앤컴퍼니에 근무하며 NTT docomo 의 i 모드 설립을 주도, 이후 리크루트, 구글, 라쿠텐 등에서 근무한 일본의 IT 비평가이자 집필가. 전작인 "더 플랫폼", "IT 비즈니스의 원리"는 두 작품 연속으로 Amazon Kindle 종합랭킹 1 위를 달성함. 대표 저서이자 한국에도 출간된 책으로는 "나는 왜 구글을 그만두고 라쿠텐으로 갔을까?", "플랫폼이다 -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원리" 등이 있다.

No.20171115-007

제목: 이렇게 생각하다

저자: 도야마 시게히코

페이지수: 183

장르: 인문,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8월 19일



<내용소개>

도쿄대생들이 사랑한 '사고의 정리학' 저자가 전하는 '지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150개의 문구'

이 타이틀은 도쿄대생들의 필수 독서 타이틀인 '사고의 정리학'의 저자 도야마 시게히코가 본인의 기존 타이틀 속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될 문구들을 발췌하여 잠언집의 형태로 출간한 책이다. 독자의 지식 생산성 향상과 창의력, 사고력 향상의 계기가 될 150개의 문구를 총 7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짧은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새로움에 대한 놀라운 마음을 유지하라, 늘 메모를 하라,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항상 질문을 가져라, 손을 움직여라와 같은 메시지는 간결하고 일반적이며 보이지만 부담 없이 읽어 내려가며 책을 읽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이미지>

think
031

考えるとは朝にする

ものを考えるのは、朝、目覚めてからの短い時間がい。よく眠ったあとの朝は気分爽快、頭の中の様子はわからないが、夜、寝る前よりは、きれいになつてゐるにちがいない。そこで考えたとか、一日中でベストであると決めた。もともと、夜になつてからもを考えようとしたとはなかったが、一日中、着想を求めていたのは、少し不自然であると思ふようになった。

『知的生産術』

054

think
043

感想を書く

本などもた読みつ放しにしないで、あと、かならず感想を書く習慣をつけるようにしたい。これがどんなにわれわれの精神を大きく豊かにしてくれるか、はかり知れない。書くことはおつくであるが、頭脳をよくするものともよい方法は書くことだ。とにかく、書いてみるのである。

『ちよとした勉強のしくみ』

066

“생각은 아침에 하라” -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짧은 순간에 하는 것이 좋다. 잘 자고 난 다음 날 아침은 상쾌한 아침은 물론, 잠들기 전의 머릿속보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루 중 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정하게 되었다. ...
- 지적 생활 습관 중 -

“감상을 기록하라” - 책을 보더라도 그냥 읽지만 말고, 읽고 난 뒤 꼭 그 감상을 적는 습관을 가지길 바란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정신을 얼마나 큰 폭으로 풍부하게 해 주는 것인지 모른다. 적는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두뇌를 더 잘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쨌든 기록하고 볼 일이다... - 약간의 공부 요령 중 -

<목차>

- 제1장 : 발상력을 단련하기 위한 힌트
- 제2장 : 사고의 프로세스
- 제3장 :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 제4장 : 지성을 갈고 닦는 생활
- 제5장 : 사고로 이어지는 독서
- 제6장 : 발상이 풍부해지는 수다
- 제7장 :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힌트

<저자소개>

토야마 시게히코

1923 년 아이치현 출생, 동경문과대학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오차노미즈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 문학박사이자 평론가, 에세이 작가로 활약 중이다. 전공인 영문학 뿐 아니라 사고, 일본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 성과를 남기며 지식의 거인이라 불리운다. 주요 저작으로는 “사고의 정리학”, “난독의 세렌디피티”, “50 대부터 시작하는 지적생활술”, “사라지는 단어, 사라지지 않는 단어” 등이 있다.

No.20171115-008

제목: 아이는 대화법으로 9프로 바뀐다.

저자: 후쿠다 켄

페이지수: 227

장르: 육아,실용

출간일: 2009년 2월 1일



<내용소개>

부모의 한마디로 아이는 크게 변한다! 부모가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

요즘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과 가정 특히 가족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이라는 좁은 생활공간에서 적절한 소통을 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가 많아 아이와의 시간이 적다', '아빠는 일에 쫓겨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은 엄마에게 일임한다', '저출산 확대로 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한정되어 있다', '부모 중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러서 아이와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하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등 다양한 이유로 소통을 어려워하는 부모와 어른들이 많다. 저자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미숙아인 채 사회에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가 그리고 어른이 커뮤니케이션 센스의 기술을 갈고 닦아 부모가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타이틀은 '부모와 아이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설문에 응답 한 60여 명 응답자의 답변을 재구성, '인사'와 '생각하는 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칭찬과 꾸짖음의 기술'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에 각각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각 주제는 짧은 단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가정의 육아에 대한 고민들이 잘 녹여져 읽는 재미를 높여 준다.

본문에서 저자는 인사를 비롯한 일상 생활에서의 소통은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이의 정서와 인격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는 것이다. 상대의 반응에 대해 좀 더 배려하고 상대의 기분을 좀 더 공감해 줄 수 있다면 좀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고 본인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은 제목처럼 단순히 입으로 이야기하는 대화법만을 다루지 않는다. 소리나 언어가 아닌 오감을 사용하는 '소통'이라는 관점에서의 '아이를 대하는 방식' 전반을 다룬다.

일차적으로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적절한 공감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 시대 나름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

리들을 키워 왔고, 현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성 세대의 양육 방식에 반발하며 새로운 가치관과 관점으로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왔는지,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것인지, 그 결과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떤 사회를 형성해 나갈지' 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타이틀이다.

<목차소개>

제1장: 「인사」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변한다.

제2장: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이끌어 내는 대화법.

제3장: '뛰어나게 성장하는 아이'의 부모는 모두 「이야기를 잘들어주는사람」

제4장: '성장하는 뇌'로 진화하는 「칭찬하는 방법」 「꾸짖는 방법」

제5장: 아이는 「부모의 대화법」으로 90프로 바뀐다.

<저자소개>

후쿠다 켄

1961 년 추오대학 법학부 졸업 후, 야마토 운수에 입사. 1967 년 언론 과학 연구소 입소. 지도부장, 이사를 역임. 1983 년 (주) 대화법 연구소 설립, 연구소 소장에 취임. 2004 년 회장. 커뮤니케이션을 축으로 한 강연, 강좌에 출강. 또한 대화법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직접지도.

No.20171115-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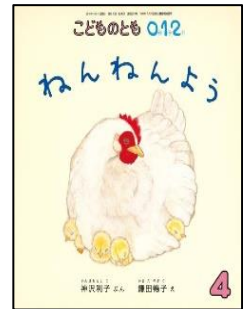
제목: 자장자장

저자: 칸자와 토시코(글), 카마타 노부코(그림)

페이지수: 22

장르: 아동그림책

출간일: 2016년 4월 1일



<내용소개>

‘자장자장’ 엄마고양이가 아가에게 속삭입니다.

아기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에겐 안겨 잠듭니다. 아기 캥거루는 엄마 캥거루의 주머니에서 잠듭니다. 아기 펭귄은 엄마 펭귄의 다리 사이에서 잠듭니다. 아기 다람쥐는 엄마 다람쥐 꼬리를 이불 삼아 잠듭니다. 아기 곰은 폭신폭신했던 엄마 품에 안겨 자장자장 잠듭니다. 동물친구들은 엄마의 ‘자장자장’ 소리에 스르륵 잠듭니다.

부드러운 리듬이 기분 좋은, 잠을 부르는 자장가 그림책입니다. 아이가 잠자기 전에 자장가처럼 읽어주면 좋은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カンガルーの あかちゃんは
かあさんの おなかの ポッケで
ねんねんよう



くまの あかちゃんは
ふかふかけがわの かあさんに だかれて
ねんねん
ねんねんよう



<저자소개>

칸자와 토시코(글)

후쿠오카 현 출생. 헤이세이시대의 아동문학작가. 1958 년 '민들레의 노래'로 데뷔. 1965 년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에 들어가 수많은 아동 문학 작품을 간행. 「오리 바바짱」으로 산케이 아동 출판 문화상, 1977 년 「흐름의 언저리」로 일본 아동 문학 작가 협회 상등 다수의 상 수상.

카마타 노부코(그림)

1952 년 시마네 현 출생. 나라 여자 대학 문학부 졸업. 「사과」, 「여우」, 「뚝뚝기다립시다」 등등. 제 34 회 산케이 아동 출판 문화상.

No.20171115-010

제목: 선물을 열어봐!

저자: 오오데 유카코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그림책

출간일: 2015년 11월 25일



<내용소개>

고슴도치네 집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선물교환의 날! 어떤 선물을 줄까요?

고슴도치네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선물교환을 하지 않겠어요? 이번 토요일 고슴도치네 집 연못에 사는 개미에게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주세요!' 라고 써있었습니다. 고슴도치는 선물 교환일이 되어 개미에게 어떤 무거운 물건도 편하게 옮길 수 있는 미니 카를 선물했습니다. 다음은 개미의 차례입니다. 개미는 집 공사를 하고 있는 두더지에게 땅을 더 잘 팔 수 있는 크고 작은 삽 그리고 손수레를 선물했습니다. 다음은 두더지 차례입니다. 두더지는 멧쟁이 거북이에게 등딱지에 붙이는 것 만으로도 밝아지는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를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친구들은 선물하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친구들이 모두 모여 고슴도치의 집에 찾아갑니다. 고슴도치에게는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귀여운 동물친구들이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했을까?'를 기대하며 직접 플랩을 넘겨 확인할 수 있는 책으로, 호기심 많은 아이에게 읽어주면 좋은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오오데 유카코

1986 년 출생,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작가. 2009 년 교토 세이카대학 만화학과 만화학부 (카툰코스) 졸업 후,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서적, 잡지, 그림책의 삽화를 그리는 것 외에, 학용품, 잡화, 식품패키지의 디자인을 직접 하는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 중임.